

두고 온 山河, 북한의 풍물지

남북교류 현실화 기대 따라 북녘땅 소개서 부쩍 늘어

두고 온 고향, 가족·친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혹은 장막속에 가리워져 있던 북한 사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또 혹은 동강난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채워야 한다는 당위적인 열망이나 잠재된 투자가치에 대한 기대 등 각기 다른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분단의 장벽을 넘어 북한땅을 밟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토통일원의 발표에 따르면 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이후 금년 1월 말까지 접수된 북한주민 접촉신청건수는 총 1112건(3127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신청건수는 남북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급증하여 지난해 12월에는 56건이던 것이 금년 1월에는 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 당국간의 활발한 접촉과 경제계의 개발협력 움직임 등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남북 교류 추세에 힘입은 일민국민들의 대북교류 조기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는 것이 통일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일의 실현은 언제쯤일지 알 수 없으나 북한 방문 및 일반인 접촉은 머지않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은 출판계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서점가에는 북한의 지리와 풍물, 명승고적 등을 소개하는 책자가 다수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단절과 봉쇄, 차단으로 점철되었던 분단의 역사는 이미 강산을 네번이나 바꾸고도 남을 40여년에 이르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었던 북한의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여건, 생활풍속 등은 분단 이전의 그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간혹 현재의 상황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 수록된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것이었으며 그 내용 역시 정부당국의 선전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최근 선보이고 있는 책들은 그동안 분단 이전의 상태에서 정지해 있던 북한사회의 현황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정리, 단행본 형태로 출판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그 사회의 개발적 현황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북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제사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제작된 북한지도

분단 40여년이 지난 이후의 북한의 모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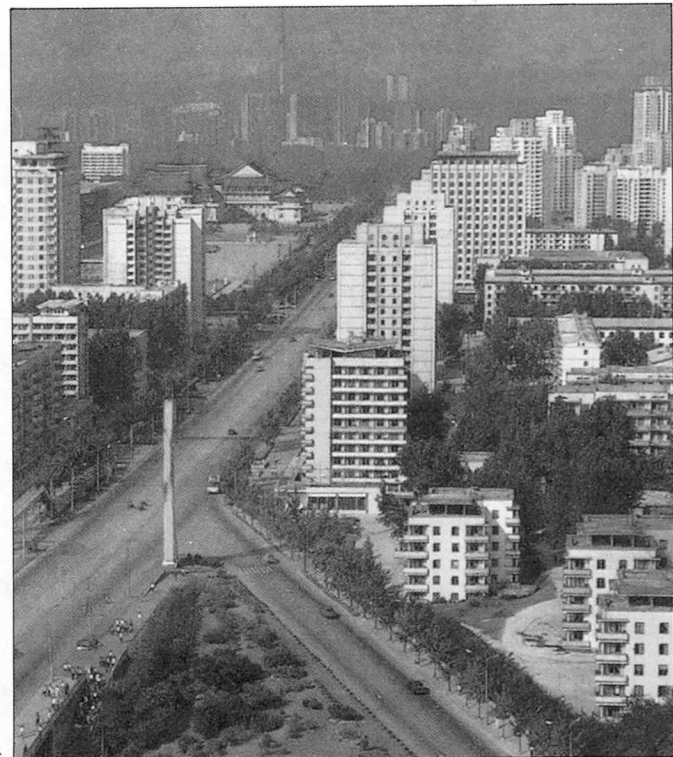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려주는 이들 책자로 현재 서점에 선보이고 있는 것은 대략 10여종.

이들 중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북한지도인 「원색판 최신북한지도」(우진지도문화사). 그동안 국내에서 상용되던 '대한민국전도'에 포함된 북한지역 지도가 실제로 해방이전에 제작된 것이어서 현재 9개도로 되어 있는 북한의 행정구역을 5개도로 표기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실용적 가치가 전혀 없었던 실정. 북한 전역을 35만분의 1 축척을 사용, 세밀하게 그린 이 지도는 북한의 지역간 경계, 행정구역, 지명 등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리는 한편 해방 이전의 지도는 별색으로 표시,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평양, 남포, 개성 등 북한의 9개 주요도시의 시가도를 실는 한편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명산의 세밀도를 수록, 등산시 이용에 참조할 수 있게 했다. 각 지명을 표기함에 있어 북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지도를 통해 북한의 지리적 변화를 엿볼 수 있다면 이른바 '북한백과' 류의 책은 북한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보다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북한총람」(북한연구소) 「新韓國郷土百科-북한편」(중앙일보사) 「우리들의 절반 북한 백문백답」(강정구·정대화, 사계절) 등이 그것이다.

「북한총람」은 1945년 해방후부터 1982년말까지 북한의 제반분야에서 알지 못했거나 불충분하게 알았던 점 등을 총보완하여 집대성한 책이다. 총 10편으로 분류, 총관에서는 북한의 지리, 기상, 천연자원 등의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남북한 비교를 수록했고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등의 제반분야에 대한 현황을 수록했다. 자료로 주요법령, 문화재, 대외조약 및 협정, 특이용어, 주요인명록 등을 덧붙였다.

「新韓國郷土百科-북한편」은 각종 고문헌과 지리지 등을 통해 북한지역의 과거의 모습과 역사적 변천을 살피는 한편 북한당국이나 재일조총련 등이 공개했거나 간행한 인쇄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북한의 현재의 모습을 밝히고 있다. 행정구역, 자연환경, 인구의 변동, 분야별 산업, 교통과 통신, 교육, 종교, 역사적 사건 및 인명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북한에 본관을 둔 姓氏나 墓塚地 등을 수록한 것도 이채롭다. 새로운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수정·보완, 연감형태로 펴낼 계획인 이



평양시 중심가의 하나인 천리마거리. 창광원, 청류관 등이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책은 별권으로 「지명인사편」 「화보·경승」을 함께 펴냈다.

「우리들의…」은 북한의 지리,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군사, 통일,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궁극한 사항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문답식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

관광안내서도 적지 않아

직접 북한을 거치지 못하는 중국쪽을 거쳐 백두산을 다녀온 사람들이 적지 않고, 비록 우스개가 섞이긴 했지만 「신혼여행을 금강산으로 가겠다」는 젊은이들의 말도 심심찮게 나올 만큼 가려진 땅, 천혜의 명승지와 고적을 지닌 북한은 관광지로써도 큰 매력을 지닌 곳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북한관광안내서나 명승지 소개서도 적지않게 나와 있다.

한국관광사가 펴낸 「북한의 관광자원」은 1945년 이후 북한전역의 행정구역 변천내용과 자원실태, 개발현황 등을 기본적으로 소개하고 북녘땅에 산재한 수많은 민족문화유산과 관광자원들을 소개한다. 아울러 북한의 최근 관광개발현황도 소개, 통일한국을 대비한 거시적 관광개발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금강산」(전영물 외, 실천문화사)은 금강산의 자연과 역사, 유적, 유물, 전설, 관련 예술작품들을 종합체계화하고 금강산의 명승구역과 탐승노정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북한관 금강산」(드라이브사)은 북한 삼일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금강산의 기후, 기상, 자연환경, 식물분포, 전설, 설화 등을 폭넓게 소개한 책이다.

이밖에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풍물, 풍토의 변화를 남북한의 백과사전, 북한의 지리사전, 도지, 군지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북한新풍물기」(고태우, 우아당)은 단순한 지리적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북녘땅 동포들의 살아 가는 모습과 그 환경을 기록했다는 데서 눈여겨 볼 만하다.

북한의 현황을 소개한 책들이 최근 들어 선보이기 시작한 요인을 신규호씨(중앙일보출판국 편찬실장)는 이렇게 설명한다. 「남북 교류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긴 했지만 인구수나 각종 사회지표조차 공개하지 않는 북한측의 폐쇄성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통로가 보다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우리 정부측의 대북정책의 변화로 인해 출판사들이 입수한 자료의 공개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이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조건과 일반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의 고조가 출판사들의 기획을 서두르게 한 것입니다.」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이들 책들의 출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리고 이들 책의 정확성이나 충실도는 남, 북의 교류와 개방이 가속화될수록 그 깊이를 더해갈 것이며 책을 찾는 독자들의 수요 또한 그에 비례할 것임에 틀림없다.

—박남정 기자